

<워킹워드바이블>은 성경말씀을 보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번 읽으면서 말씀의 주제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십시오.

## 요한계시록 3장 1-13

[계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 3: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 하였노니

[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 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계 3: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계 3: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계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 3: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당신을 향한 계획을 살펴보세요.

## 만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 분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 보세요...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세상 나라의 모습을 분별해서 적어 보세요.

## 인식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적어보세요.

## 적용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삶에 실천에 옮기고 싶은 깨달음이 있다면 이곳에 적어 보세요.

## 기도

본문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본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절을 기도문으로 바꾸시고 그 기도문을 <간구-선포-감사> 기도로 드려 보세요.

## 나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눠봅시다...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진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반원들과 함께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눠 봅시다.

1. 주님은 사데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사데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는 혹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까? (1절)

▶ (그룹제안) 왜 주님은 사데교회 성도들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할 때 죽은 자가 되는 것일까요? 혹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너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있습니까? (8절)

▶ (그룹제안) 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을 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계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다섯 번째로 '사데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데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교회를 돌아보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 모두 '주님'께 속한 것으로, 그만큼 주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데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

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1절)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데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사데 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으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죽은 시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시체가 된 까닭은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2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온전입니다. 본문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온전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플레로오>로서, 여기서서는 수동태 완료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플레로오>라는 단어가 '채우다' 또는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무언가로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데 교회는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충만했을 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데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육신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런 충만함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히 채운 저들의 육신을 가리켜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세상적으로는 충만하였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소위 '걸어 다니는 시체'였던 것입니다.

[계 3:2] 너는 일깨워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 하였노니

[계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 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사데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절)고 경고하셨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람바노>로서 '취하다' 또는 '받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들었다'는 것은 <아쿠오>로서, 이는 '듣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복음을 깨달았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생각하다'는 <므네모뉴오>의 현재 명령형으로, '항

상 상태를 뒤돌아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지키다'는 <테레오>의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서, 이미 취하고 깨달았던 복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오>로서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번에 확실하게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경고대로 생각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데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계 3: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 [계 3: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주님은 사데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을 자가 몇 명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4절). '흰 옷'은 천국의 옷을 의미합니다. 오직 천국에 거할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누구든지 흰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4절). 주님은 누가 '흰 옷'을 입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4절). 오직 합당한 자만이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주님은 오직 거룩한 신부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드레스를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오직 거룩한 신부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는데, 거룩한 신부는 '옳은 행실'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님은 '믿음'만으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오직 옳은 행실이 있는 성도만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계 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세마포는 '흰 옷'을 의미하며, 이는 곧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5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없이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서는 하늘의 큰 상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천국의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야고보의 말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행함이 없이 들어가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데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은 자"라고 언급하신 것은 저들이 천국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흰 옷을 입지 않았기에 천국 문조차 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사데 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음'과 '행실'이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사 데



사데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50k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사데는 두아디라 남동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은 터키에 해당됩니다.

사데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직 고업과 양털 염색이나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가 되었으며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사데는 남쪽을 제외한 전체가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족한 물질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때문에 두 번이나 정복을 당하고 말았는데 B.C. 6세기 고레스(Cyrus)의 공격과 약 200년 후 안티오쿠스(Antiochus)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니다. 사데는 시벨리(Cybele) 여신을 섬겼으며 로마 황제 숭배사상이 매우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 사데에는 사도요한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계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  
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  
셨습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행실을 바르게 지켰음을 의미  
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  
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 22:22]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열쇠'는 곧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신다는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서면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 3:8]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8절)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을 위해 열어놓은 천국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으면 천국 문은 열린 것이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그 문은 닫힌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신 것은 저들의 '행위'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8절).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켰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더욱 칭찬하신 이유는 저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은 원문에 <미크란 에케이스 뒤나민>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및 외적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본문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카이 에테레사스>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온 아시아가 이슬람교도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혔을 때에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최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계 3: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켰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저들은 모세의 율법은 철저히 지키나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

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  
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죽인 행위입니다. 저  
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도리어 하나님을 대  
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가리켜  
'사단의 회'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회'는 사탄을 따르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유  
대인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여기고 잘  
섬겼으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사탄을 따  
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 3: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란 '사단의 회'로 인한 공격으로부터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인내함으로 참된 복음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세력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저들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없애버리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예수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앞잡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거나 예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자는 모두 유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시험의 때'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이 시험을 면치 못할 것이나,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 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상급을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견고한 신전의 기둥만큼은 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며, '보아스'는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왕상 7:21]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견고한 기둥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는 사데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40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로 이곳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곳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경제적인 부를 누렸지만 지진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있어 A.D.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아시아가 짓밟힐 때에 유일하게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암미아(Ammia)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A.D. 100-160)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으나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